

순창, 길항미생물 특허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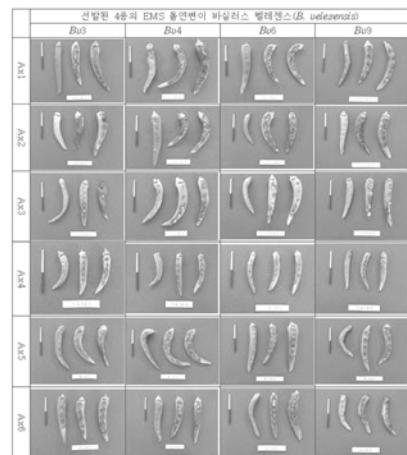
고추 탄저병·농작물 생육 촉진에 효과적

순창군이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적극 추진중인 유용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군은 15일 고추 탄저병과 농작물의 생육 촉진에 효과적인 길항미생물 순창 고초균 Bv(Bacillus Velezensis Sunchang SRC210201)을 개발, 특허 기록 및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순창군이 농식품부, NH농협 등과 함께 역대 청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이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소재우 종지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순창 고초균 Bv는 순창군에서 수집한 토착 균주를 화학적 돌연변이(ethyl methane sulfate, EMS)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길항 미생물을 개발했



다.

특히 순창 고초균 Bv는 고추 탄저병의 발생 초기부터 사용할 경우 방제가 0.37로 농약을 사용한 화학적 방제가 0.24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생물 제제인

민름 기준의 합성 농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기술은 아니다.

군은 농약보다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고추 탄저병의 발생 밀도를 낮추고 발생 정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10~100배 희석한 순창 고초균 Bv 혼합액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순창 고초균 Bv는 종자 및 유묘에 10~100배액을 처리할 경우 밭에는 1일이 앞당겨지고, 잎의 생육이 42~46% 광합성 능력 4% 지상부 생육율 2.1배, 뿌리 발달 66%가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군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농약 및 액비의 사용량과 사용 횟수를 크게 줄여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자재 사용을 합리적으로 절감해 소득 개선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진영무 소장은 "올해 순창군 지역에 맞는 고추 탄저병 복합내병성 품종도 함께 개발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는 탄저병 복합 내병성 품종을 재배하면서 본 기술을 함께 사용하면 탄저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농촌신활력 액션그룹 활동 '돌입'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역공동체 전문인력 2기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완료

임실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갈 전문인력을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그룹의 양성을 위한 제2기 액션그룹 회망자 40명을 대상으로 공동체 아카데미 2기 교육과정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체 아카데미는 지난달 8일부터 5주 동안 10회차 과정으로 진행됐다.

농번기와 코로나 상황임에도 총 50시간 중 80% 이상의 참석률의 수료기준

을 통과한 22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2기 아카데미 기초과정은 작년 1기의 교육내용 보다 더욱 강화된 커리큘럼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경제, 농식품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 트렌드,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사업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동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먹거리(농식품가공)·유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사업 분야의 기초를 이해하

고, 실제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및 범 인설팅 실무,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등의 내용으로 설계됐다. 실제 참석자들의 교육 민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짐으로써 참여 열기가 높았다는 평이다.

이날 수료한 수료자들은 앞으로 공동체를 구성, 임실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공동체 지원사업 단계별 추진 체계에 따라 공동과정을 거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는 '공동체 맞춤형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조건도 부여받는다. 단계별 추진체계는 아카데미 기초과정과 맞춤형 지원사업(S/W), 아카데미 전문과정, 활성화 지원사업(H/W)이다.

이들 액션그룹의 활동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대도시 카페형 판매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등 임실군 농특산물의 판로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

남원시의회는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지홍, 손중열, 박문화, 최형규, 강성원, 윤기한, 노영숙 의원을 예결위원회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강성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형규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간 남원시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며, 오는 19일부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강성원 위원장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남원시민들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위원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또한 "조금 넘는 남원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산물유통시설 방역관리 특별 점검

남원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농산물유통시설 대상으로 개편된 방역수칙 집중홍보 및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인 농산물 산지유��센터 5개소,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8개소이

며,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상태, 방문자 접종 출입자명부 작성여부, 주기적인 환기·소독 및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활동 강화

임실군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7월부터 9월 15일까지 독거노인·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폭염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폭염대비 건강관리는 방문건강관리 전담간호사,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지난도우미 29명이 각 가정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체크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한다.

폭염 특보 시에는 일부 전화와 문자서비스 제공 등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경로당 운영을 재개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폭염대비 예방수칙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순창·순창경찰서 야간 안심귀갓길 조성

순창군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순창의 야간 귀갓길 조성에 앞장서면서 밤길 여성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군은 옥천안심귀갓길(순창터미널~장류로)과 중앙안심귀갓길(순창터미널~중앙로), 터미널길(순창터미널 뒤편 주택가) 등 3구역을 야간귀갓길로 지정해 CCTV와 로고잭터,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또한 순창경찰서 112순찰차가 2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빛体质없는 여성 밤길 안전지킴이로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다.

특히 군은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각 기관의 예산을 순천초등학교·후문부터 수양면선까지 봉일한 구간에 도로표지판 설치를 집중시켜 설치구간을 늘리는 등 시너지 효과도 얻었다.

순천초·후문에서 수양면선 열도로까지 이어지는 길은 골목이 좁고 어두워 야간 보행에 불안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군·경은 이번 도로표지판 설치로 어두운 도로가 밝아져 야간 보행에 불안감이 경감되고, 도로 미관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농기센터, 귀농귀촌 기초영농 기술교육 2기 교육생 모집

내달 20일까지 25명 선착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에서는 농촌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 교육희망자에게 영농 경험 및 지역민들과의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조기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2기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5명(선착순)으로 신청

은 8월 20일까지이며, 교육은 8월 27일부터 생활기술분야·원예작물분야·특화작물분야·작물환경분야 등 재배기술교육과 현지농가의 사례발표, 신규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지식, 지역민들과의 소통 및 화합에 도움이 되는 분야 교육을 10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총 10회(1일 4시간) 진행된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은 농촌진흥과 농업인교육(063-620-8019)으로 문의 하거나 남원시청홈페이지(통합예약·시스템)에서 교육신청 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밸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